지역 소식통

정읍시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성료

제12회 정읍시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가 지난 23일일부터 24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부안대명리조트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시의회 의장을 비롯 보육교직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보육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상호 간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보육 교직원 13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보육 교직원들은 "보육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화합의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기념사에서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육시설 관계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며 "시에서도 올바른 보육정책을 펼치는데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서, 공동체 실현 위한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는 26일 오전 11시 감곡면 주민복지센터에서 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공동체 실현을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강길호 이장 등 2명에게 민경협력방범활동유공으로 감사장을 먼저 수여하고, 이어서 정읍경찰 업무 추진사항, 주민간담회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 대해 통장 김 모씨는 "경찰서장이 직접 이장회의에 방문하여 정읍치안활동을 설명하고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는 것들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주민과 소통하려는 정읍경찰의 모습을 보고 경찰에 대해 믿음이 간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종화 서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곳은 언제든지 찾아가 정읍치안을 설명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생활치안, 공동체치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타 지자체 쓰레기 봉투 사용 허용

고창군,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토록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오는 7월 1일부터 타 지자체에서 고창군으로 이사 오는 전입세대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고창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입자들이 이사 전 지자체에서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군은 이에 전입신고 시 다른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량제 봉투 부착용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고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 세대 당 20매 이내로 교부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증 스티커 부착은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전입세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 '헤아림 교실' 운영

정읍시보건소,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화 · 목요일 주 2회 4주 과정

정읍시보건소가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인 '헤아림교실'을 운영한다.

이는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4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헤아림교실은 치매환자 돌봄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족 지원 사업이다.

보건소는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보호와 관리방법 교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강식은 오늘 있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정읍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기 과장이 '치매환자 가족지지'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전북과학대학교 신소율교수가 찰흙 소조작업/요즘 나의 모습/얼굴표정/중요한 항아리/나에게 상장 주기 과정의 미술・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치매 상담사의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교육도 진행된다.

보건소는 "헤아림교실은 치매 가족의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환자를 보다 더 잘 돌보는데 필요한 자세와 태도를 전하기 위한 교육이다"며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정적 태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은 물론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천, 뱀장어 치어 5000미 · 다슬기 종패 100만미 방류

토종 어족 자원 보전 하천 환경 정화 위해

26일 샛강 살리기 일환으로 토족 어족 자원 방류 행사가 있었다.

김생기 시장을 비롯 관계 기관 단체장과 정읍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회원, 시민 등은 이날 정읍천에 뱀장어 치어 5000미와 다슬기 종패 100만미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사라져 가고 있는 토종 어족 자원을 보전하고, 하천 환경 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류를 통해 학생들의 자연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시는 하반기에도 1억원을 투입해 공유 내수면인 하천과 소류지별 서식 환경에 맞는 뱀장어와 메기, 동자개, 붕어 등을 방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연 친화적 내수면 어족 자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내수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고부가가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이동민 신임 부안경찰서장 취임

"산・들・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진 천혜의 사계절 관광부안에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에 앞서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울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밝혔다.

26일 제61대 부안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동민 신임 부안경찰서장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에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이 존중되는 치안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민 서장은 "부안의 치안책임자로 기본과 원칙을 치안현장에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 '주민을 안전하게, 사회를 정의롭게, 현장을 활력있게'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부안경찰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신임 이동민 서장은 1962년 전북 익산출신으로 전주 해성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경찰간부 후보 37기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제주 청 생활안전과장, 서귀포경찰서장, 전북 청 정보화장비담당관, 군산경찰서장, 전북 청 정보과장, 익산경찰서장, 전북 청 보안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가뭄극복 위해 전직원 발벗고 나서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가 연일 지속하는 폭염과 강우 부족 등 가뭄장기화에 따라 가뭄을 극복하려고 전직원이 가뭄극복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부안지사는 전북지역 강수량이 7월까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해갈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농업용수 공급 특별대책을 수립해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특히 부안지사는 우선 대대적인 '농업용수 아껴 쓰기 운동'을 통해 급수일수를 조정해 제한급수를 하고, 물관리자동화(TM/TC)시스템을 이용 주요 간선의 용수공급량을 조절해 수문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전직원이 총 동원되어 효율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계속 되는 가뭄으로 염해 피해가 발생한 계화지구에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17년 말에 준공 예정인 청호2양수장을 조기 준공해 6월12일부터 가동을 시작하였고, 17년 말에 준공 예정인 계화12양수장을 6월 안에 조기 준공하여 염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수가 어려운 하장지구, 조포지구, 석포지구, 사산지구 하천과 배수로를 이용하여 가물막이 등을 설치하고, 한해장비를 총 동원하여 용수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남출 지사장은 "가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버려지는 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저수지 물의 유출량을 최소화해 가뭄피해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 절약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멸강충 발생… 고창군 "정밀 예찰 방제를"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최근 성내면, 흥덕면, 성내면 일원에서 멸강충이 발생해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사료작물 재배 포장 및 논을 중심으로 정밀 예찰해 방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멸강충은 5월 하순에서 6월 초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온 멸강나방이 6월 중순경 알을 낳아 부화한 것으로 사료작물, 벼 등 화본과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어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멸강충은 이동성이 있으며 노령의 경우 방제가 어려워 현재 1~3령의 유충상태에서 방제가 가장 효과적이므로 사료작물 재배지, 논둑, 제방 등을 자주 살피고 발견 즉시 적용약제를 살포해야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멸강충은 4령(15mm)이 넘어가면 살충제 살포방제도 어렵고 벼과 식물이 부족하면 콩밭 등으로 이동하여 피해를 주므로 방제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농업기술센터는 멸강충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예찰과 방제지도 활동을 강화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